

# 인천시,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환영음악회·국제행사 유치

2025~2026년 '교류·방문의 해' 세계한인의 날 10월5일 전후로 방문주간 운영하고 이벤트 개최 2025 모국 초청연수 개최 지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경원재엠버서더인천에서 열린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내년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교류·방문의 해'를 설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시는 재외동포청의 인천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인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5~2026년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이하 '교류·방문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세계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전후로 재외동포 방문주간을 운영하여 환영이벤트를 개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재외동포와 인천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환영음악회를 개최하고,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부스도 운영한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송도컨벤시아나 하버파크호텔, 인천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적용해 다양한 관광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10월 18일 '2025~2026 재외동포 인천교류·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체결한 '인천시-인천관광공사-인천마이스(MICE)얼라이언스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거주 재외동포 중 인천에 연고가 있는 동포를 '인천인(人) 재외동포'라 칭하고 현재 141명의 자료를 구축했다. 또 이들에게 온라인 소식지를 보내고 인천으로 초청해 시정 견학을 제공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향후 인천의 대내외적 투자·외교활동 및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

울러 재외동포청과 협업을 통해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를 인천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해 1,200여 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인천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러한 재외동포와의 교류·협력의 기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도 강화해 간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2025년 10월에 송도에서 개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리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돌입한다.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교류·방문의 해 기간에 집중 개최해 재외동포 거

점도시 인천을 재외동포사회에 각인시키고, 인천의 중소기업과 재외동포 또는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와의 교류·협력 활동의 중심에는 '재외동포컬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있다.

올해 10월 18일 개소한 양 센터는 인천시의 비즈니스·의료·교통·생활·관광 등 분야별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비즈니스상담, 교류회의, 재외동포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재외동포와 교류 및 비즈니스의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올해 인천시는 재외동포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재외동포 관련 단체와 다섯 차례의 업무협약을 포함한 20여 회의 유의미한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다"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천시가 글로벌 톱티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 수험생 '시험무효 확인' 소송청구 취지 변경

연세대, 8일 추가 2차시험 시행하고 '1차 시험 합격자' 합격 처리하기로 수험생 "1차 시험 공정성 훼손됐다"

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돼 '재시험 이행'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최근 이를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 반면 연세대는 해당 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차 시험 효력을 두고 대학과 수험생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수험생 측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 청구 취지를 기존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연세대가 재시험을 확정하자, 이를 다시 '1차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시험은 물론 앞서 지난달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차 시험 역시 1차 시험 정원(261명)만큼 뽑는 대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은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상실했으므로, 정식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 변호를 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채워 뽑고 2차

시험 결과로는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2차 시험에서는 (합격자들) 거의 뽑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반면 연세대는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해당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현진 기자 ihj@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서울서 개최

농식품부, 올해 이어 내년도 유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담론', 한국의 재료와 서울의 미식을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의 미디어회사 윌리엄리드社 주최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 리더들의 투

표를 통해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요리사 및 식당경영자(34%), 음식평론가(33%), 미식여행가(33%)로 구성된다. 또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운영해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13년 시작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돼 왔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서울 개최가 처음이다. 당시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 식품·외식산업 종사자, 식품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발효음식, 사찰음식 및 소고기 정형 문화 등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식문화를 알렸다. 장(醬)을 비롯해 볶나물, 전복 등 다양한 식재료를 선보이는 등 한식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누리집' 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학

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지난 2007년도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없이 운영돼 증가하는 법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법무행정서비스는 ▲입법예고 ▲자치법규 ▲소송안내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상담 ▲법무행정 자료실의 총 7개 메뉴로 구성된 법무행정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 기능을 확장하고, 입법예고 게시판도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소송실무집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법무행정 자료실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2월 4일 (수) 음력: 11월 4일

수도권 날씨: -3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6/3, 동두천 -5/4, 가평 -6/3, 파주 -6/3, 서울 -3/4, 양평 -3/4, 인천 -2/4, 수원 -2/3, 용인 -2/3, 평택 -4/4

해돋이: 07:31 | 해질: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맨친 "바이든 아들 사면, 돌 안 던질 것...트럼프도 사면하라"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서 공급받은 탄도미사일 60발 사용"

▲美, HBM·반도체장비 中 수출통제에 국내 업계도 긴장...“영향 최소화”  
▲지구촌 전쟁 통에 100대 방산기업 무기 수출 4.2% ↑



▲트럼프 국방장관 지명자 과거 음주·성비위 문제로 단쳐서 퇴출  
▲인텔 팻 겔싱어 CEO 사임...경영난 책임 진 듯 /사진 뉴시스